

# “얼마나 추웠니”...광주 침수 추모관 유기족 ‘분통’

### “관계자들 나 몰라라 하고 유기족·구청 관계자들만 일해”

### 유기족 대표 1명씩만 추모관 들어가 유골함·유품 들고나와

“비 들어할 때 고인(유골함) 두고 관계자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록적인 폭우로 추모관의 지하 납골당이 빗물에 잠기면서 유기족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 북구 모 추모관.

비가 그친 9일 오전 추모관 앞 잔디마당에는 뒤늦게 침수 소식을 들은 유기족 100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고인의 유골함이 무사한지에 촉각이 곤두서 있었다.

또 “침수 직전 유골함을 옮겼으면, 이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 아니냐”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김모(32·여)씨는 “유골함이 잘 보관돼

있는지 상황이 궁금하다. 살아생전에도 돌아가셔도 잘 모시지 못한 마음에 고인께 죄송스럽기만 하다. 괜히 지하 1층에 모셨나 후회가 된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60대 여성 유기족은 “폭우는 어쩔 수 없지만, 추모관 관계자들이 안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추모관 내 남편(유골함)이 어떻게 됐는지만 알고 싶다”며 가슴을 찼다. 지난밤부터 추모관을 찾아 물을 파낸 유기족들도 있었다.

한모(50)씨는 “지난 밤 11시에 추모관을 찾았다. 비가지로 물을 파내며 내부를 정리했다. 관계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유

족과 구청 관계자들만 힘써 일했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한 20대 남성은 “내가 유족인데 왜 못 들어가? 아빠 나 왔어요”라며 경찰의 가이드라인을 뚫고 추모관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한때 추모관 내부 출입이 통제됐다. 침수에 따른 감전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일부 유기족 간 머리를 맞든 끝에 각 유기족 대표 1명씩만 추모관 내로 들어가 유골함과 유품을 들고나오기로 했다.

이후 각 유기족 대표들이 추모관에서 유골함을 들고나오자 곳곳에서 울음 섞인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한 유기족은 “아이고 우리 자식 얼마나 추웠냐”며 흐느꼈다.

추모관 관계자는 “유기족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 유골함을 미처 다 옮기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 모 추모관 지하 1층 유해 인장·보관시설이 물에 잠겨 유기족이 9일 오전 유골함을 직접 옮기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가족들에게 왜 연락이 늦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내

김민정 기자

## 곡성 산사태 본격수사...국도15호선 발파공사 연관성 조사

### 산사태 발생 전 주택의 정확한 위치·야산과 거리 등 파악



전남 곡성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로 5명이 숨진 가운데 8일 오후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뒷편 야산 도로 일부가 무너져 통제되고 있다.

경찰이 5명이 숨진 전남 곡성의 한 마을 산사태가 국도 15호선 확장공사와 연관성 등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곡성경찰서는 9일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산사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수

사대를 투입해 사고 지형 등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토사에 덮혀 버린 주택의 구조물 등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야산과의 거리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경찰은 야산 중간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도15호선 확장공사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사태 피해 주민들은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발파작업이 수차례 있었다”고 이야기 했다.

또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이 도로확장공사 현장과 연결돼 있는 점도 확인했다.

실제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로 일부는 무너졌으며 지나가던 차량 대가 추락해 운전자 1명이 구조되기도 했다.

경찰은 “산립정 등도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받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며 “인재일 가능성도 염두해두고 관련성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8시29분께 오산면 성덕마을 뒷편의 야산의 흙과 돌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택 5채를 덮쳤으며 5명이 숨진채 발견됐다.

국도15호선 확장공사는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며 완공 예정일은 2021년 12월16일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 차량 100여대 침수 아파트 주민들 ‘막막’

### 전기적 문제로 엘리베이터 작동도 어려워

기록적 폭우에 직격탄을 맞은 광주 북구 신안동 모 아파트 9일 오전 이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 배수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었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는 물폭탄을 미쳐 피하지 못한 차량 100여대가 침수돼 있다.

배수기 10여 대와 소방 배수차량이 실틀 없이 가동 중이었지만, 흘러든 빗물은 주민들의 마음처럼 쉽사리 빠지지 않았다.

배수 작업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특히 흘러든 토사로 뒤덮인 차체가 드러날 때면 차량 소유주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한 주민은 “어제 방수를 듣자마자 주차장으로 갔는데 이미 차량이 물에 잠겨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니 매우 속상하다”며 눈물지었다.

아파트 한쪽에서는 주민 대표가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침수 차량 목록을 집계하고 있었다.

전날 침수 여파로 이 아파트의 수도도 끊겼다. 이 때문에 아파트 단지 한 칸에 간이화장실이 마련됐다. 주민들은 굳은 표정으로 간이화장실을 드나들며 얼굴을 찌푸렸다. 식료품 마련 등 일상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기가 끊겨 17층 높이의 아파트를 승강기 없이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수병과 라면 등을 들고 계단을 오르려는 주민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가득했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간이 전기시설을 통한 최소한의 전력만 공급되고 있다. 서선욱 기자

## 광주 오피스텔 지하서 30대 숨진 채 발견...“빗물에 휩쓸린 듯”

집중 호우가 쏟아진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빗물에 휩쓸려 지하로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된다.

8일 오후 1시57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모 오피스텔 지하에서 A(3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전후 행방이 묘연했고 배수 작업 중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물이 차오른 오피스

텔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려다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광주 북구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 82mm의 폭우가 쏟아졌다.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